

##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카톨릭의대 핵의학교실 / 서울의대 핵의학교실

정 수 교 / 이 명 철

### I. 대회 추진 배경

1961년에 대한핵의학회가 창립된 후 그동안의 발전에 힘입어 현재 약 160여 명의 전문의가 120여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핵의학회 발표 논문수로 세계 4위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6일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핵의학회 각 국 대표자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 세계핵의학회 회장국(2002년부터 2006년까지)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핵의학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회원들이 협력하여 세계핵의학회의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는바 그 추진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제반 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핵의학회 개최 성공성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4년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 대양주 핵의학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국제학회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이 축적되었고 더욱이 1994년 PET Center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1995년 1월28일 대통령령으로 국내 핵의학회의 역사적인 업적인 핵의학전문의제도의 신설이 확정되면서 학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그 결과로 2000년 이후에는 미국핵의학회에서 매년 85편이상, 특히 2003년에는 93편의 연제를 발표하여 해외회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둘째, 새 천년에 즈음하여 국내 핵의학 분야는 새로운 재도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핵의학과 경쟁적으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와의 독립으로 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자구책강구 및 정책 구축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

었다. 즉, 상존하고 있는 핵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내외적인 협력 또는 홍보를 위하여 총체적인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학술행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 II. 대회 목적 및 의의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의 목적은 국내 학자들과 세계의 저명한 핵의학자 및 관계자들간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이 대회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핵의학회의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핵의학 분야의 대륙별, 나라별,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핵의학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그 일례로 아시아 지역 핵의학 협력기구(ARCCNM, 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와 같은 지역 기구의 설립 및 발전을 돕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이 핵의학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정부, 일반인 및 의료관련 전문가가 모두에게 핵의학의 전문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핵의학 임상 수준과 핵의학 기술 및 인프라를 향상시킴으로써 핵의학 정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 III. 대회 개요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는 "Global Harmo-

nization and New Horizon of Nuclear Medicine"이라는 주제 하에 2006년 10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대한핵의학회 및 대한핵의학 기술학회가 주축이 되는 세계핵의학회에서 주최하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의사협회, KAERI,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대회의 공식언어는 영어이며, 참가대상을 지역별로 나눠보자면, 국내 1,000명, 일본 및 중국에서 1,000명, 기타 아시아 및 대양주에서 300명, 미국 500명, 유럽 500명,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부터 200명으로 총 67개국에서 3,500여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있다. 전문의를 위한 학술 프로그램외에 핵의학 기사들을 위한 Technologist Session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무에 임하고 있는 기사들의 네트워킹과 최신 정보 교환을 독려하고, 결과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본 대회의 전후에 중국 및 일본에서 Pre 및 Post Congress Symposium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식행사로 개막식과 폐막식을 주최하게 된다. 핵의학 관련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보교환 및 홍보활동을 돕기 위한 전시회 또한 기획하고 있다.

#### IV. 대회 일정

개막식은 22일 저녁, 학회연회행사는 24일저녁 그리고 폐회식은 27일 정오에 개최된다. 학술 프로그램은 세계의 석학들을 비롯한 유명 연자 150명 가량을 초청할 것이며 발표논문은 약 500개로 선정할 것이다. Plenary Session, Special Session, Symposia 및 Continuing Education Program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Track은 Pediatric, Oncology, Endocrinology, Cardiovascular, Neurology, Basic Sciences등의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질 것이다. 또한, 관련 기업의 정보 및 학술적 토론을 위하여 산업체별로 주관하는 사용자 모임 혹은 심포지움도 활성화한다.

특히 IAEA에서 주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획하고 각국 정책 입안자, 정부 관료 및 산단체 학은 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 기회를 마련한다. 그리하여 개발 및 저개발국가에서의 핵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를 통하여 발전을 촉진시키

고자 한다.

#### V. 전시회

관련 기업들의 전시회를 동일 기간 동일 장소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약 2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첨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전시하고, 관련학회의 홍보 부스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VI. 예산

총예산은 약 37억으로 그 중 20억원이상을 관련업체의 협찬금과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나머지 수입원은 참가자들의 등록비, 만찬참가비 및 전시비 등이 될 것이다.

#### VII. 세계핵의학회 조직 구성

세계핵의학회의 조직은 세계핵의학회 사무국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가 있다.

##### 1. 세계핵의학회 사무국

세계핵의학회 사무국은 회장 이명철, 사무총장 정준기, 재무 이종두를 중심으로, 국제학술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와 국제협력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Advisory Council(세계핵의학회 전임회장들 및 세계 석학)으로 구성되어 세계학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 2.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성공적이고도 효율적인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조직위원장은 이명철 서울의대교수, 부위원장 정수교 가톨릭의대 교수, 일본의 Junji Konishi 교토대 교수, 중국의 Shengzu Chen 북경대교수, 사무총장은 정준기 서울의대 교수가 맡고 있다. 효과적인 학술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하여 핵의학 전문분야별로 10개의 분과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세부분과로 뇌·신경, 순환·호흡기, 간담도·위장관, 내분비·비뇨기생식, 근골격, 종양·감염, 방사선생물학, 핵의학물리, 방사화학, 핵의학 기술이 해당된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Regional Scientific Committee와 대한핵의학회회원으로 이루어진 Local Scientific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전체 조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직위원회

- |            |  |
|------------|--|
| 1) 조직위원장   | : 이명철 (서울의대)                                   |
| 2) 부위원장    | : 정수교 (가톨릭의대),<br>J. Konishi(일),<br>S. Chen(중) |
| 3) 사무총장    | : 정준기 (서울의대)                                   |
| 4) 재무      | : 이종두 (연세의대)                                   |
| 5) 학술위원장   | : 김병대 (성균관의대)                                  |
| 6) 분과위원장   |  |
| 간행         | : 김창근 (원광의대)                                   |
| 전시         | : 손형선 (가톨릭의대)                                  |
| 행사         | : 이성용 (가톨릭의대)                                  |
| 홍보         | : 홍인수 (연세원주의대)                                 |
| 국제협력       | : 최원식 (인하의대)                                   |
| 국내협력       | : 김종순 (한일병원)                                   |
| 7) 국제정책연구위 | : 임상무 (원자력의학원)                                 |
| 8) 핵의학기술위  | : 조규진 (서울대학교병원)                                |
| 9) 사무차장    | : 김상은 (성균관의대),<br>서일택 (대한핵의학회),<br>최재걸 (고려의대)  |

### XIII. 세계핵의학회 운영 계획

한국은 WFNMB 2006의 주최국인 동시에 WFNMB의 사무국으로서, 세계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nternational Policy Development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이 세 개의 Committee는 핵의학계 주요 학회가 개최될 때마다 소집될 예정이며, 오는 6월에 열리는 미국핵의학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어 8월의 유럽핵의학회 및 11월에 개최되는 미국방사선

학회(RSNA)에서도 각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1. 국제협력위원회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국제협력위원회는 주요국의 핵의학계 저명인사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의 목적은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세계핵의학회의 의의, 기능 및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WFNMB가 단순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역할만을 전담하였을 뿐 별 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WFNM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핵의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직을 재구성하든지 또는 정책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국제학술위원회

(ISC,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역시 세계 핵의학 분야에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구성되고, WFNMB 2006 학술프로그램의 큰 골격을 형성하고 결정하며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제를 구성하고 연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디어 및 방향을 제시한다.

#### 3. 국제정책연구위원회 (IPDC, International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각국의 핵의학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 현실을 파악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설치목적이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핵의학 연구 및 산업을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세계핵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규제 및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일례로 핵의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그 정착과 향상을 위하여 IAEA, ESNM등과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성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사용 및 폐기하는 과정에 관한 규제 법률에 관한 논의 또한 이 Committee가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6개의 Task Force Group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것이다.

- 1) Optimum Regulation based on Radiobiology

- 2) Technology to overcome competing modalities
- 3) New Radiopharmaceutical Application
- 4) Health Economics
- 5) Infrastructure for Nuclear Medicine
- 6) New Emerging Positions

#### 4. 조직위원회 운영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2개월마다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주요 사항 결정, 방향 제시 및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 학술위원장, 국제정책연구위원장 및 핵의학기술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실무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안을 토의 결정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연계시켜 세계학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무총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성은 사무총장, 세명의 사무차장, 학술, 간행, 전시, 행사, 홍보, 국내협력 및 국제협력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주도로 부위원장과 5-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같이 필요한데로 자율적으로 분과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 5. 협력 구축 방안

세계핵의학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의사회, KAERI,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의 관련 기관의 후원 없이는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부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의 관련 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아시아 대양주 핵의학회(Asia & Oceania Federation of

Nuclear Medicine & Biology),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ARCCNM), 한중일 협력체제, 미국핵의학회, 유럽핵의학회, 남미핵의학회 등과 서로간의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세계핵의학회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MOU를 추진하는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 IX. 기대효과

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국내외 연구학술 활동의 활성화, 관련 산업체의 기술향상과 경영 개선 등이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핵의학에 대한 홍보 효과가 예상되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더불어 우수 인력의 양성과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의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국내 핵의학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핵의학 산업 발전 및 기반 구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가 평화적 이용 특히 모든 나라에서 의학발전의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보다 더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세계 주요 국제대회를 운영,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큰 이정표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